

상록탑

'나' 를 50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10점)

등근 모서리, 손바닥보다 큰 화면, 일체형 배터리. 어떤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묘사한 것이다. 당신은 이 휴대전화의 브랜드를 맞출 수 있는가?

전자기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차렸겠지만, 그렇다. 이진 아이폰과 갤럭시의 이야기다. 애플의 아이폰6와 삼성의 갤럭시S6를 얼핏 보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똑 닮았다. 조금씩 조금씩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던 이들은 결국 상향평준화했는지? '비슷한 모양새'로 만났다.

아이폰과 구분되는 갤럭시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형 배터리'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그리고 갤럭시 노트5는 모두 일체형이다. 보다 얇은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다.

반대로, 아이폰은 점점 화면을 키워가는 휴대전화 틈에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매된 아이폰6플러스는 큰 사이즈에 속하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비교해도 작지 않다. 개성 대신 동영상, 사진 등을 보는 데 용이한 '큰 화면'을 택한 것이다.

대다수 소비자의 성향과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의 장점을 본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다.

취업을 앞둔 우리의 모습은 갤럭시와 아이



공나
대학취재부 부장

“우린 모두 다르기에 특별하다”

폰의 모습과 비슷하다. 원래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소위 '취업 9대 스펙'에 맞춰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쏟는다. 취업 9대 스펙은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 인턴, 수상경력, 대외활동을 말한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숨이 막히지만, 모든 취준생의 스펙이 상향평준화되는 시점에서 “스펙보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라”는 말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느껴진다.

이 때문에 집념이여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을 갖추려고 대외활동에 나가고, 형편이 맞지 않는 사람도 어학연수에 다녀온다.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지만 영어 점수

를 얻기 위해 토의 학원에 다닌다. 개성은 사치가 되는 시대다. 뚜렷한 개성과 나만의 장점으로 성공해 모험담을 늘어놓는 이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신만의 개성과 강점을 찾으라는 그 ‘꼭 딱힌 말’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폰과 갤럭시가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만이 가진 ‘특색’이었다.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작고 깔끔한 아이폰의 디자인을 좋아했고, 두꺼워서 조금 예쁘지 않더라도 실용적인 갤럭시의 배터리를 좋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두 똑같아진 스펙과 스토리로는 기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도 얻을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스펙의 상향화만이 ‘능력’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경험과 뚜렷한 개성,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스펙만’ 높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능력을 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다르기에 특별하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받고 그 다름이 ‘스펙’이 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개성과 특색을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설

글로벌 이화, 내실 먼저 채우길

최근 본교는 대·내외적으로 ‘글로벌’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운영되는 글로벌 한국학, 글로벌스포츠산업 전공 등을 비롯해 2015 학부교육선도 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본교 인재 상에도 글로벌 리더가 포함돼 있다. 지난 2일에는 아시아여성대학 셰리블레이 명예총장과 함께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본교 홍보 포스터에서도 글로벌 이화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문구다.

하지만, 과연 본교 글로벌화가 양만큼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본지 평가는 ‘글썸’이다. 본지는 이번 호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상황 등을 파악해 본교 글로벌 현주소를 짚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은 3년 새 17.1% 증가했지만 외국인 전임 교원 수는 13.3% 감소했다. 외국인 교원의 한국 정착 및 생활 적응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쉬운 점은 본교의 글로벌화가 ‘학생’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거시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만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 학내 시스템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화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서, 글로벌 이화에서 한 번쯤 공부해보고 싶어서 본교를 찾았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착 모일 곳이 없어 방향하고,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절절 맨다. 일본에서 온 한 유학생은 자료 출처를 어떻게 밝히는지, 틀리는 맞춤법은 없는지 등이 신경 쓰이지만 마땅히 도움 청할 곳이 없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 교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착 외국으로 과전되는 본교 학생들은 불만을 내비친다. 미흡한 정보 제공, 과전 이후 관리 소홀, 학점 이전 과정에서의 혼란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 유입과 본교 학생 해외 파견 수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수치적인 글로벌화와 내실 있는 글로벌화가 함께 진행돼야 비로소 의미 있는 글로벌 이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학생들의 바람과 불편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신실·변경되는 글로벌 학과 또한, 학과 운영, 커리큘럼 제정 등에 내·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화의 글로벌화는 조금 더 가까이에 그 지름길이 있을 수 있다.

학생 칼럼

거짓말에 지친 당신에게 부릅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끝나기도 전에 중학교 동창이 졸업을 했다. 그날의 술자리는 친구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된 중학교 동창은 우리들의 히어로였고 하나의 믿음과도 같았다. 누구보다 절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생활을 보냈기에 그녀의 대학생활 마친 표에 모두가 박수를 보내려던 참이었다. 축하와 부러움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할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취했던 건 아니다. 분명 애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요컨대 울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났다. 청년실업시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십대 젊은이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학위서와 합격통지서를 동시에 쟁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하니.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생각이 퍼뜩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우는 아이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기에 괜히 소주만 잔뜩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에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하반기 인턴ships을 위해 쓰다 만 자기소개서가 문득 생각이 났다. 세수를 한 후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키고 화면에서 깜박이는 커서를 따라 내가 쓴 글을 읽어보았다.



정윤조
국제·13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해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자기소개서에 나 자신은 없었다. 휴일에는 바둑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락 페스티벌에 가는 것을 좋아하며, 책장을 빼곡히 채워 넣을 정도로 일본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는 것과 아빠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경한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대신 자기소개서 속의 나는 책임감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에 능하고 끈기가 있으며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말 뿐이다.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거짓말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 무력감. 영화 <월플라워>에서 주인공은 말한다. “내가 비참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난 살아있는 거야.” 눈

앞의 자기소개서에 비참함마저 느낄 수 없다면 나는 죽어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진정한 나 자신은 어느 곳에서 숨을 쉬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어느새 여름이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에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아직까지 자소서에는 내가 도전정신이 강하다는 부분에 멈춰있다. 언젠가는 취업을 위해 다시 컴퓨터를 키고 자판을 두들기며 거짓말을 써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 그때도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답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아니 이제 곧 나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론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라는 모노크롬의 틀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면 내 친구 역시 지킬 수 있는 만큼 친구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다. 거짓말로 얼룩진 전쟁 속에서 방패도, 갑옷도 줄 수 없지만 대신 나도 너와 같다고. 나 자신을 잃어버릴 생각에 두렵다는 말을 해줄게.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만평 박소라 만평기자 parksola94@gmail.com

MISSION! 쓰레기통을 찾아라
단, 건물 안에 들어가지 말 것

금주의 책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톰 켈러·데이비드 켈러 지음, 청림출판, 2015
제목부터 유쾌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 책은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 IDEO의 형제 창업자가 쓴 창조적 디자인 사고 길잡이입니다. 저자는 현업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혁신이란 것이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발상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적인 디자인 사고를 발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 속의 사례가 증명하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실패를 허락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혁신을 향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인기도서 / 5층 일반자료실 658.314 K287c한A]

여론광장

인생의 심표를 찍어야 할 때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던 내 근황을 얘기하다 보면 심중팔구 ‘휴학하고 뭐해?’라는 물음을 던져준다. 몇 차례 의미 없는 대답들을 하다 보니 내가 꼭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위해 휴학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이상한 반항심이 들었다. 사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휴학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충실히 지키고자 배움의 속도를 늦추게 됐다.

만년 새내기일 것 같은 마음과는 다르게 어느덧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왠지 허한 마음이 들어 나를 돌아켜 보는 시간을 갖

게 됐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내 스스로가 아닌 것 같은 불쾌감을 견딜 수 없었다. 다쳤는지도 몰라 무감각했던 생체기를 인지한 순간 저릿하게 아파오는 그런 기분 말이다. 나는 미적지근한 순간들에게 과감히 해방을 고하고자 휴학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나 자신은 누구인가’를 고민하다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개성을 배우며 자랐는데 이제는 개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온전히 자아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다.

혹자는 나를 현실감 없는 철부지라고 나무랄 수 있을 것이고, 그에게 나는 시간 낭비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닦아 놓은 삶의 지표들을 잣대 삼아 등 떠밀려 지내기보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인생에서 처음 나의 의지로 맞아보는 이 자유의 시간을 조금 더 뜨겁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

조급해하지 말자. 나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우연히 조우한 그대에게도 이 말을 전하며 마무리 하고 싶다. **김성신(작곡·12)**

0812-0910 중도 대출순위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아리랑 : 趙廷來 大河小説 제2판	조정래	해냄	2004
2	(만화) 토지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2015
3	버림 받은 황비 :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 디앤씨미디어	2013-2015
4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Rowling, J. K.	문학수첩	2007
5	서양도시계획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보성각	2004
6	유토피아 : 존재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나라	More, Thomas, Sir, Saint	들음세김	2006
7	(정령왕) 열키네스 : 이환 판타지 장편 소설 개정판	이환	드림북스 : 삼양출판사	2011-2015
8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촌상춘수	문학동네	2009-2010
9	(Hackers)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 reading 2	해커스어학연구소	해커스어학연구소	2011
10	룬의 아이들. 2부, 데모닉	전민희	제우미디어	2003-2006
11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12	고구려 : 김진명 역사소설	김진명	새움출판사	2011-2013
13	연세 한국어 =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14	아리랑 : 趙廷來 大河小説	조정래	해냄	1994-1995
15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